

# 광주는 벌써 2015년 봉축 준비중

## 광주불교연합회 '2015 봉축기획단' 구성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이 발족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영광, 중심사 주지)는 9월 12일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빛고을관동제 봉축행사 준비 특별위원회(이하 봉축기획단)'를 구성하고, 단장에 시각스님(만덕사 주지), 부단장에 법선스님(문빈정사 주지), 아도스님(유유암 주지), 인성스님(관음암 주지)을 각각 임명했다.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총무부장 효진스님(광덕사 주지)도 봉축기획단에 합류했다.

이러 봉축기획단은 9월 22일 첫 면담을 통해 봉축기획위원회에 11명의 재가불자를 추천했다. 재가불자는 청소년, 언론, 포교 사단, 복지, 방송, 환경, 외국인단체, 종합 학교, 군법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불교활동가들이 추천됐다.

봉축기획단은 10월 1일 첫 회의를 갖고 내년 봉축사업에 대한 계획을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립할 예정이다.

시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년 봉축행사가 광주불교를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봉축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준비에 들어간 봉축기획단은 지난 10월 10~11일 양일간 진주 유등축제 관람과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에 정기 회의를 열어

### 단장에 만덕사 주지 시각 스님

### 불교활동가 11명 기획위원 위촉

### 12월 19일 '송년의밤' 서 계획 발표

일에 정기회의를 통해 봉축행사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이주성 대표(광주의 국인복지센터)는 "오랜기간 침체에 있었던 광주불교가 새롭게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단순한 봉축행사가 아닌 광주 불교인들의 화합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법적



진주유등제를 참관하며 2015봉축 행사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기획위원들의 모습

이 되었으면 한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특히 광주불교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봉축행사의 주요한 의제로 '광주불교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는 행사,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키워내는 행사,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 광주지역 봉축행사 준비는 예년에 비해 4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2015년 예산이 올 해 예산보다 2~3배 크

게 증액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섬세한 준비의 필요성이 요구 되었기 때문이다.

봉축기획단은 향후 3개월 동안 회의를 거쳐 봉축행사의 계획안을 만들어 12월 19일 개최되는 '빛고을 불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불자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오는 11월 3일 정기총회와 빛고을 나눔나무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동국사 침탈사료관, '쌀의 나라 군산' 전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쌀을 수탈해가는 역사 현장을 고발하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015년 1월까지 동국사 침탈사료관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타임캡슐-쌀의 나라 군산' 전으로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쌀을 수탈해가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사진과 당시 직접 사용하던 기구, 문서 등 유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4개의 소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는 1898년 경부철도합동계약서, 1901년 군산상항, 1894년 청일전쟁 종군일지, 1929년 황손 이우 감시일지, 쌀 확대사 진, 군산미곡취인소 미두통장, 구마모토 농장의 쌀 선적용 대형 계수판, 토지 수탈을 위한 측량기 세트, 소작계약서, 식량영단 서류 등과 당시 사용하던 관련 유물들이다.

또한 군산 축항기념으로 804가마의 쌀을 쌓아놓은 쌀탑, 일제 정미소 등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일제의 강제개항으로 외국인을 위한 조계지가 만들어지고, 평화롭던 어촌은 하루아침에 파헤쳐지고 군산진 관아 건물은

조동제 전북지사장



쌀의 나라 군산전 전시품 모습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쌀의 터전을 잃은 민초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100년전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종걸스님은 "그동안 3회에 걸쳐 일제의 조선 침탈 역사현장을 기록물 중심으로 전시해오고 있다"며 "가리고만 싶은 아픈 기억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현장을 전시를 통해 다시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는 10월 4일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 규장각실에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일본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일일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 마곡사, 교구신도회 구성 위한 발기인대회

공주 마곡사는 10월 12일 마곡사 연합당에서 제6교구본사 신도회 구성을 위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제6교구 본말사 신도회 임원 수련회를 겸해 열린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18개 사찰 66명의 각 사찰 신도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40명이 신도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교구신도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장은 최병권 마곡사 신도회장이 추대됐으며 말사 신도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다.

최병권 임시의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부처님의 법을 익히고 자기 성불과 주변을 불국토로 가꾸는 포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여 최고의 신도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교구 내의 공동의 사



업을 목표로 본말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교구본사 신도회 창립법회는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장흥 보림사, 명상치유 산사음악회

천년고찰 구산선문 장흥 보림사가 10월 18일 '템플스테이 및 명상치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산사의 향기를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산사음악회는 헤민 스님과 임동창 보림사 예술감독을 초청해 풍성함을 더했다.

1부는 청태전 들차회 및 장흥 특산물 홍보, 2부는 '국민멘토 헤민 스님 법문, 3부는 임동창이 진행하는 음악회로 흥아라벤드, 소프라노 박성희 씨가 출연했다.

보림사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선차일여 단기출가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박 2일,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선차일여 템플스테이에서는 청태전 만들기, 108배, 비자굴길 명상, 탑돌이, 참선, 선체조, 산행, 차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단기출가 템플스테이에서는 간화선 집중수행 등이 진행됐다. (061)864-205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전강 영신스님 부도와 탐비 제막식 봉행



전강문도회 스님들이 대흥사에 마련된 부도탐비를 10월 15일 제막하고 있다.

현대 한국 선종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전강(田岡) 영신 스님(1898~1975)의 부도와 탐비 제막식이 10월 15일 해남 대흥사(주지 법각)에서 개최됐다.

전강문도회(대표 송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인제 용화선원 성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원경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스님, 동국선원 유나 정찬스님을 비롯해 용화선원 신도 등 30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제막, 정근, 헌다, 헌향, 헌화, 종사영반, 행장소개, 인사말, 청법가, 전강스님 육성법문, 헌화가 진행됐다.

법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강 대흥사

계서 대흥사 주지로 부임하시어 서산대사 이후 13대 종사, 13대 강사의 법맥을 면면히 계승하시고자 큰 원력을 세우셨던 곳으로, 송담 큰스님께서 최근 부도탐비를 대흥사 부도전에 세워달라는 뜻을 밝히시어, 보선스님(대흥사 회주), 정찬스님(대흥사 동국선원)이 뜻을 받들어 제막식을 봉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탐비의 비문(碑文)은 문도들이 전강스님의 행장과 오도송, 열반송을 중심으로 간략히 짓고 글씨는 전남지역의 대표적 명필가인 학정 이돈홍 거사가 썼다.

부도탑은 총높이 7자 반, 가로 2자 반, 폭 4자로 상륜부, 탑신, 기단부로 구성된

었으며, 추모비는 총높이 11자, 가로 5자 반, 전체 10자 반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후에는 대흥사 성보박물관에서 현재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으로 알려진 송담스님의 글, 그림을 전시하는 송담관 개관식이 봉행됐다.

송담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전강스님은 1898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16세에 해인사 제산스님을 은사로 응해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출가후 만공스님으로부터 '無' 자 화두를 들고 수행했으며, 직지사에서 6년간의 고행과 당대 선지식였던 제산·용성·만공 스님 밑에서 정진했다.

스님은 1923년 25세 되던 해 덕수산 금선대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고 선종 77대 조사가 되었다. 33세에 통도사 조실로 추대된 이래 법주사 복천선원, 수도암 선원 등 전국의 조실을 역임하며 후진을 양성하던 스님은 1962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을 건립하고 주석하면서 송담스님을 제자로 남겼다. 스님은 1975년 1월 세수 77세, 법랍 62세로 좌탈입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효국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대흥사는 경내에는 서산대사를 모시는 표충사가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완주 송광사, 비빔밥축제 사찰조리 체험 마련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2014' 전주비빔밥축제에 연(饌)음식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음식의 고장 전주시 한옥마을 일원에서 10월 23~26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4 전주 비빔밥 축제에는 송광사에서 준비한 사찰음식을 직접 시식하고 조리 체험을 통해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찰음식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린다.

행사에서는 과식과 육식을 삼가고 채식위주의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 '비움과 나눔'이라는 사찰음식의 정신을 바로 알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송광사는 비빔밥 축제 기간동안 송광사에서 직접 재배한 연과 관련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2014' 전주 비빔밥 축제에 선보이는 사찰음식은 송광사에서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연을 중심으로 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연잎밥, 연꽃차, 연자 죽, 연잎 차, 연갈국수 등이다.

또 적게 먹고(小食) 적당히 먹고(笑食), 채소위주의 식사를 하는 소식(蔬食) 등 3가지 소식을 권장하는 3소식 캠페인도 진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회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